

I. 모스크바 지사

□ 경제 동향

○ 러시아 중앙은행(CBR) 기준금리 연 14% 동결(10.23)

- 러시아 중앙은행(CBR)은 10월 23일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4.00%로 3회 연속 동결 유지함(7월 14.25%에서 14.00%로 인하 후 8·9·10월 동결 지속)
-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드론 공격 등에 따른 유류 수급 불안정과 운송·물류비 상승, 서비스 물가 반등 등으로 인해 10월 중순 기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(CPI)이 약 6.8%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연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.1~7.6% 범위로 상향 조정하며 긴축적 통화 여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

○ 10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블화(USD/RUB) 환율은 월 평균 80.65~81.61루블 사이에서 등락하며 9월 평균(85.11루블) 대비 완만한 강세 안정세를 보임. 외화 결제 통화 다변화 조치로 루블화 급락 위험은 완화되었으나, 서방 금융 제재 및 대외 무역 결제 지연 변동성은 시장 리스크로 지속됨

□ 국내외 관광 정책

○ 극동 관광 인프라 개발 로드맵 세부 집행 계획 승인

-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극동북극개발부는 9월 동방경제포럼(EEF) 결정 사항을 구체화하여, 2030년까지 총 4,370억 루블 규모의 연방 재정을 극동 관광 인프라에 투입하는 세부 시행 계획을 승인함. 블라디보스토크 및 프리모르스키주 내 6만 실 규모의 신규 호텔·리조트 숙박 인프라 확충 사업과 블라디보스토크 외래객 500만 명

유치를 위한 행정·재정 지원 조치가 10월 초 착수됨 <출처 : 인테르팍스통신(2026.10.05.)>

○ 연방 관광세(Туристический налог) 지자체 조례 확정 및 가이드라인 배포

- 러시아 재무부와 경제개발부는 2025~2026년 전면 도입되는 지자체 '관광세(숙박요금의 최소 100루블 또는 1%)' 도입 가이드라인을 배포함. 10월 중 블라디보스토크, 상트페테르부르크, 소치 등 주요 거점 도시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, 징수된 세수를 지역 관광 인프라 및 위생 정비 재원으로 직결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고시함 <출처 : 타스통신 (2026.10.11.)>

○ 국가공원 생태관광 거점 착공 및 공인가이드 의무 등록제 시행

- 러시아 총리실은 2030년까지 250억 루블을 투입하는 29개 국립공원 내 41개 친환경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1차 연도 예산 배정을 완료하고 본격 공사에 돌입함. 아울러 개정 법률에 따른 공인가이드·통역안내사 2.2만 명의 국가 의무 등록제 시행 점검을 10월 중순부터 개시함 <출처 : 리아 노보시티(2026.10.14.)>

□ 아웃바운드 동향

○ 러시아 MTS(통신사) 한국내 현지 모바일 QR 결제 서비스 개시

- 러시아 국영 통신사 MTS는 자사의 My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내 러시아인의 결제 편의를 위한 현지 가맹점 QR 결제 서비스(한국 제로페이 결제 인프라 기반)가 정식 개시하였음. 이를 통해 서방 금융 제재 속 러시아 여행객들의 한국내 현지 결제 편의가 대폭 개선됨. <출처 : MTS 보도자료(26.10.26)>

○ 2026/2027 동계 시즌 40개국 직항망 구축 및 휴양지 직항 취항

- 러시아관광협회(ATOR)의 동계 항공 운항 분석에 따르면 올겨울 러시아발 국제선은 전 세계 40개국으로 직항 노선이 연결됨. 중국은 주당 300~315회 정기편을 유지하고 동계 스케줄 개편으로 좌석 공급이 5~7% 추가 확대됨. 10월 15일부터 아에로플로트(Aeroflot)가 모스크바-베트남 푸꾸옥 직항(주 2회) 운항을 개시했으며, 10월 30일부터 노보시비르스크-몰디브 직항(주 2회)이 취항함. 태국은 1~9월 누적 방문객 120만 명을 돌파하며 최상위권을 유지함.

<출처 : 러시아관광협회 (26.10.23)>

○ 10월 목적지별 패키지 투어 평균 지출액 분석

- 러시아관광협회(ATOR) 및 주요 여행사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10월 러시아인의 패키지 투어 평균 지출액은 목적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. 중국, UAE, 몰디브 등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반면, 러시아 국내(-18.3%), 베트남, 압하지야 등은 하락세를 기록함. 10월 러시아 국내 패키지 평균 결제액은 70,800루블(평균 체류 5박)로 1인 단독 여행 및 알뜰 숙박 비중이 증가함. 유럽행의 경우 직항 부재와 비자 발급 지체로 튀르키예·UAE 경유 고가 멀티데스티네이션 상품 중심으로 고착화됨.

<출처 : 러시아관광협회 (26.10.7)>

○ EU, 러시아인 대상 쉥겐비자(유럽) 정책 추가 강화 논의

- EU는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10월 EU 이사회 비자 실무그룹에서 검토되었으며, 다음 11월 회의에서 지속 논의 예정
- 현재 러시아인에게 가장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이탈리아는 제도 발효 이전 러시아인 대상 비자발급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발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5일로 단축 발표하는 등 유입 관광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

- EU 내에서도 국가별 러시아인 대상 비자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강경한 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체코 등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비자 정책의 변화 방향에 러 업계 및 러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
<출처 : RATA News (26.10.20)>